

손흥민, 아스날 올렸다...시즌 6호골



“원하는 결과 얻어...준결승 올라 행복해”

토틀넘, 다음달 첼시와 결승행 놓고 격돌

손흥민(토틀넘)이 아스날과의 북런던더비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의 선제골을 앞세운 토틀넘은 라이벌을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맞았다.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2018~2019 카라바오 컵(리그컵) 8강전에 선발 출격해 1골을 기록했다.

헤리 케인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면서 최전방 공격수의 중책을 맡은 손흥민은 전반 20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델레 알리가 넘겨준 공을 침착하게 잡아둔 뒤 골키퍼 페트르 체흐를 속이는 왼발슛으로 아스날의 골문을 열었다.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린 손흥민의 움직임과 정확한 타이밍에 찰려준 알리의 패스가 만든 합작품이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6호골이다. 지난 9일 레스터 시티전 이후 FC바르셀로나(스페인), 버리(잉글랜드)

전에서 침묵했던 손흥민은 이날 다시 발톱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후반 34분 에릭 라멜라와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다.

토틀넘은 손흥민의 활약과 후반 14분 터진 알리의 썬기골로 아스날을 2-0으로 제압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구단 '스퍼스 TV'와 인터뷰에서 "이곳에서 열린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준결승에 올라 행복하다. 그럴 만한 경기를 펼쳤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골을 넣은 것이 매우 놀랍고 특별하다. 골을 넣은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 준다"며 "패스를 준 델리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토틀넘은 다음 달 카라바오 컵 4강에 올라 첼시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뉴스스

권창훈 다시 뛰다

7개월 만에 복귀

부상으로 쓰러졌던 권창훈(디종)이 7개월 만에 그리운드로 돌아왔다.

권창훈은 20일(한국시간) 프랑스 디종의 스타드 가스통 제라르에서 열린 보르도와의 2018~2019 쿠프 드 프랑스(컵대회) 16강전에 교체 출전했다.

권창훈은 지난 5월20일 양재와의 2017~2018 프랑스 리그앙 최종전에 선발 출전했으나 후반 31분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진단 결과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큰 부상이었다. 골장 수술대에 오른 권창훈은 갈망하던 2018 러시아월드컵 출전의 꿈을 접어야 했다.

끝을 알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에 몰입한 권창훈은 긴 터널을 지나 이날 그리운드로 모습을 드러냈다. 휴팬들은 박수로 힘겨운 재화를 마친 권창훈을 격려했다.

권창훈은 후반 25분 투입돼 20분 가량을 뛰었다. 팀은 0-1로 패했지만 권창훈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다가올 경기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뉴스스

빛장 해제된 쿠바 야구...MLB 포스팅 시스템 도입

야구 선수들이 합법적으로 메이저리그(MLB)에서 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P통신은 20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 쿠바야구협회가 쿠바 선수들이 망명하거나 탈출하는 일 없이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뛰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협약에 따라 쿠바 선수들은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쿠바 야구가 '히피추어 최강'으로 불릴 정도로 쿠바 선수들은 출중한 기량을 자랑했다. 어깨가 강한 투수 뿐 아니라 파워와 주력에 강점을 보이는 타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쿠바, 미국 간의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쿠바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쿠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국을 탈출하는 경우가 즐비했다. 아니면 제3국으로 망명해 미국으로 가는 과정

을 거쳐야 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쿠바 선수들의 위험천만한 탈출과 망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메이저리그와 쿠바야구협회는 한국과 일본, 대만과 마찬가지로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바야구협회는 25세 이상에 6년 이상의 선수 경력을 갖춘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하면 제한없이 풀어줘야 한다. 더 어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쿠바야구협회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는 쿠바의 유망주들을 영입할 수 있고, 쿠바야구협회는 거액의 이적료를 챙겨 부족한 재정을 채울 수 있게 됐다.

롭 만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몇 년 동안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쿠바 야구 선수들이 위험하게 탈출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



으로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쿠바 선수들이 겪은 과정 없이 쿠바의 다음 세대들이 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쿠바 출신의 LA 다저스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는 "정말 행복한 날이다. 미래의 쿠바 선수들이 우리가 거쳐온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무척 행복하다"고 전했다. 푸이그는 2012년 보트를 타고 쿠바를 탈출해 멕시코로 망명했고 이후 영주권을 얻어 메이저리그에서 뛰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택근 "문우람 아꼴던 선수였는데...폭행해서 미안하다"

3년 6개월 전 팀 후배 문우람을 폭행했던 이택근(38·넥센 히어로즈)이 머리를 숙였다.

KBO는 19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의 KBO 회의실에서 이택근의 폭행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문우람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승부조작 브로커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KBO의 영구실격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15년 5월 넥센 선배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3년 6개월 동안 밝히지 않았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KBO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가해자는 이택근으로 드러났다.

이택근은 상벌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후 돌아갔다. 상벌위에서는 이택근의 징계 여부를 검토한 후 정규리그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이택근과의 일문일답

▶ 상벌위에 오게 됐는데 심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자리에 온 건 우람이가 인터뷰한 내용 때문에 상벌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다. 문우람은 아꼴던 선수였다. 폭행이 있었던 전날에 무발 상태,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정리하고 오라고 했는데 우람이가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방망이 뒷부분으로 머리 쪽을 몇 대 때렸다.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그 때만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든다. 여론에서 나온대로 너무 심한 폭행을 했거나, 개인 감정에 앞서서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어떻게 때렸든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때린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우리 팀은 후배를 폭행을 하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람이가 이 자리에 나왔으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싶다. 방송으로 기사로 볼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폭행 때문에 진기록부를 냈는데 사안에 대한 서로의 온도차가 있는데.

"부터 10까지의 강도가 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다. 우람이를 감정적으로 폭력배처럼 때린 적도 없고, 악감정도 없었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기 어렵다. 야구배트 들었다는 자체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되는 행동이다.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다. 어떻게 때린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였다."

▶ 문우람의 아버님이 찾아오셔서 사과를 했다는데.

"아버님이 찾아오셔서 죄송하다고 했다.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아버님처럼 했을 것이다. 때린 부분은 무조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버님도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넥센 히어로즈 이택근 선수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열린 상벌위원회가 끝나고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받았나.

"주고받았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람이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연락이 왔었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당시 철이 없었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저는 (승부조작판 관련해) 일이 꼬여 있으니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우람이를 많이 아꼈다. 어렵게 운동을 했던 선수고 어렵게 프로에 온 선수라는 걸 알고 주장으로서 많이 챙겼다."

▶ 폭행 때문에 진기록부를 냈는데 사안에 대한 서로의 온도차가 있는데.

"부터 10까지의 강도가 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다. 우람이를 감정적으로 폭력배처럼 때린 적도 없고, 악감정도 없었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기 어렵다. 야구배트 들었다는 자체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되는 행동이다.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다. 어떻게 때린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였다."

▶ 문우람의 아버님이 찾아오셔서 사과를 했다는데.

"아버님이 찾아오셔서 죄송하다고 했다.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아버님처럼 했을 것이다. 때린 부분은 무조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버님도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천덕 구레군은 지리산오전, 갈매마을, 화엄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